

중·고등학생의 금융피해 경험 여부 결정요인*

김 성 희**

【요약문】 본 연구는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금융피해 경험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금융사기 피해 경험 여부는 성별, 성적, 부모 특성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보다는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 위험상품 투자 경험, 학교 밖 금융교육 경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가상화폐를 비롯한 위험상품 투자 경험은 금융사기 피해와 일관되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학교 내 금융교육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금융피해가 단순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감수 행동 및 무분별한 디지털 금융환경 노출 속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이해, 사기 신호 식별, 비판적 판단, 환경·또래 압력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 금융피해, 금융교육, 경제교육, 가상화폐 투자

* 이 논문은 2026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사회과교육학부 부교수(sh.kim@jbnu.ac.kr).

I. 서론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간편결제, 온라인 중고거래,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활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에 노출되는 시기 또한 점차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활동의 범위와 빈도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교육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도박 사이트 유인, 피싱,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 증가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금융사기 피해는 단순한 일회성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손실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도박이나 추가 불법대출, 심지어 중고거래 사기, 절도와 같은 2차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매일경제, 2024; 연합뉴스, 2026). 이처럼 금융사기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전한 금융인식과 금융행동의 형성을 저해하고, 성인이 된 이후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금융사기 예방과 조기 개입은 개인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및 행태 형성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이 주요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출사기,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및 대처방안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금융교육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별 개설 및 학생의 선택 여부에 따라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신설만으로 청소년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청소년 금융사기 피해의 실태와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 예방정책과 금융교육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관련 연구는 대체로 성인을 중심으로 금융사기 피해의 원인과 특징을 분석해왔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성인이나 고령층 대상으로 한 개인적·심리적 취약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학교 금융경제교육 경험이 청소년의 금융사기 피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사기 연구의 대상을 한국의 중·고등학생으로 확장하여, 청소년기 학생들의 금융피해 경험과 그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 특성, 가족 특성, 학교 특성, 위험상품 투자 경험, 경제·금융 교육 경험 등을 통제함으로써 중·고등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피해 여부의 결정요인을 탐색한다. 청소년기는 금융태도와 금융행동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금융피해 경험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향후 금융습관과 금융 의사결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금융피해 경험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고등학생 대상 금융교육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금융사기 피해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성인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해외의 재무학, 심리학, 노인학 분야 연구들은 금융사기 피해의 주요 개인적 요인으로 고령으로 인한 인지력 저하(Gamble et al., 2014; Han et al., 2015), 우울감(Lichtenberg et al., 2013), 위험선호(DeLiema et al., 2025), 과신(Gamble et al., 2014)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OECD(2026)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금융이해력 부족, SNS 사용 증가, 주의 부족(lack of due diligence), 온라인 거래 증가 등을 금융사기 취약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변화 및 사기 설계의 정교화(sophistication)가 금융사기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금융사기 노출 및 피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진수(2024)는 2022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실시한 성인 2,0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사기에 노출된 성인들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고연령과 소득 불안정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금융사기 시도 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금융사기 취약성 지수 중 ‘정서적 고통’과 ‘금융 몰이해’ 성분을 추출하여 우울감이나 정신적 긴장감이 심할수록, 금융적 지식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금융행동을 보일수록 금융사기 시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갖고 있거나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금융사기 시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사기에 대한 노출이 금융정보를 더 찾아보도록 유도하거나, 다양한 금융거래 참여로 인해 금융사기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정운영 외(2023)는 전자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성인 2천여 명을 온라인 상에서 설문조사하여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과 금융사기 피해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해액이 발생한 집단은 피해액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기 과신 수준이 높고 위험회피성향 및 금융사기 대응역량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자산이 적고 부채가 많을수록, 돈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일수록, 금융포용도와 금융사기 대응역량이 낮을수록 금융사기 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사기 피해는 개인의 주관적 경제적 여건과 금융활동 및 투자행동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활동에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한 금융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Siu et al., 2024). 금융상품에 대한 이용 및 투자 경험 역시 금융사기 노출 가능성과 관련된다.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은 금융기관, 금융정보 및 투자상품에 대한 접촉 기회가 많아지면서 금융사기에 노출될 기회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 Bai and Wang(2025)은 미국의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자산 투자자가 비투자자에 비해 금융사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금전적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사기 피해의 개인적·환경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축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예방 전략으로서 금융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금융교육이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무작위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Burke et al.(2022)은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을 통해 투자사기의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3분 분량의 영상 또는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가 중단기적으로 금융사기 상품에 대한 투자 의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실험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투자사기에 대한 상기(reminder)를 다시 제공할 경우, 이후 3개월 동안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인지력 및 금융이해력이 높은 개인들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ubilay et al.(2023)은 금융교육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케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기 판별에 유용한 팁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한 뒤, 이후에 등장하는 SMS 메시지가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무작위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교육적 개입이 정답률을 유의하게 높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교육 방법이 참여자의 조심성을 증가시켜 모든 메시지를 사기로 판단하는 경향을 높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confidence) 역시 강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금융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기대효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판별능력보다 경계심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성인 대상 연구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교육과 금융지식, 그리고 사기 회피행동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Andreou and Philip(2018)은 키프로스 대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자율, 인플레이션, 위험, 분산투자 등에 대한 금융지식이 높을수록 폰지 사기를 접했을 때 거절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부모의 소득이나 조연 등은 금융 의사결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학생 집단에서도 가족 배경보다 개인의 금융이해력이 사기 회피에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lackwell et al.(2024)은 교육을 통해 비판적 의심을 함양하는 것이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성은 낮은 투자사기 탐지 실험을 실시한 결과, 경제학 및 재무학 과목 수강 여부 자체는 사기 상품 선택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참여자의 의심(suspicion) 수준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의심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경제·재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기 상품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의심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교육을 받아도 사기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교육의 효과가 단순한 지식 습득으로 발현되기보다는, 사기 신호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보다도 제한적이다. Zhou et al.(2026)은 중국의 고등학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피해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 자주 접촉하거나 위험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위험행동이 금융사기 피해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Kerstens and Jansen(2016)은 네덜란드의 10~18세 청소년 6천여 명을 조사하여, 낮은 통제력과 온라인 탈억제(disinhibition)가 경매사기, 신원사기, 가상 절도 등의 금융범죄 피해 경험뿐 아니라 가해 경험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의 금융사기 피해가 온라인 생활양식과 자기통제력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학교 금융교육이나 경제교육 경험이 금융사기 피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금융교육의 효과를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성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경험과 금융사기 피해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III. 데이터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및 금융생활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해당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재학생이며, 17개 광역시도와 초중고 학교급 및 고교유형, 학년을 층화변수로 삼은 표본 추출법으로 학교와 각 학년별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김지경 외, 2023). 금융 피해 경험에 대한 문항이 중·고등학생 설문조사에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다. 연구에서 사용된 총 표본(조사참여자) 수는 중학생 2,853명(2,869명 중 학업성적 수준 미응답 16명 제외), 고등학생 3,000명(3,019명 중 학업성적 수준 미응답 19명 제외)이다.

종속변수는 금융피해 경험 유무로, 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대리구매한 후 상대방이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을 입금), 2) 개인신용정보 매매(대출을 위해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대리입금 모집자에게 보냄), 3) 휴대폰 대리개통(휴대폰 개통 후 기기를 업체에 주고 휴대폰 금액의 일

부를 받음), 4) 대리입금(SNS 등 온라인에서 대출한 경험)에 대한 경험 유무이다. 네 가지 피해 경험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경우 금융 피해 경험이 있다고 처리하였으며, 각 세부 경험에 대한 피해 유무도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다.¹⁾²⁾ 기존 청소년 연구에서도 온라인 환경에서의 경매사기, 신원사기, 가상 절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관련 피해 경험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Kerstens and Jansen, 2016), 온라인 상의 위험행동 및 개인정보 공유 등과 금융사기 피해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Zhou et al., 2026).

<표 1> 금융피해 경험 비율

피해 유형	전체표본(%)	중학생(%)	고등학생(%)
피해 경험	12.78	12.01	13.6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5.93	5.71	6.17
개인신용정보 매매	1.31	1.13	1.49
휴대폰 대리개통	6.08	4.70	7.56
대리입금	3.64	3.90	3.37

주: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값을 제시하였음.

전체 표본의 12.8%가 위의 네 유형 중 하나 이상의 금융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중학생 표본의 12.0%, 고등학생 표본의 13.6%가 금융피해를 경험하였다(<표 1>). 대리입금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고등학생의 피해 경험 비율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대리개통이 전체 표본의 6.1%로 가장 흔한 피해 수단이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그 뒤를 이었다. 두 개 이상 유형의 피해를 겪은 경우도 피해경험 학생의 20.4%로 파악되어 금융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

- 1) 대리입금 피해 여부의 설문조사 응답은 10만 원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응답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 2) 청소년은 성인보다 금융거래 경험과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대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폰테크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비정상적 금융거래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의 ‘금융피해 경험’ 문항에 포함된 사례를 종합하여 청소년의 금융피해 경험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사기 피해뿐 아니라 불법금융행위의 이용 또는 참여 경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금융피해 경험은 사기의 피해자 여부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청소년의 불법적·비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한 노출 경험 또한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는 경우가 조사 자료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학년, 지역 규모, 최근 학업성적 수준(상, 중, 하), 학교 내 금융교육 경험 여부, 학교 밖 금융교육 경험 여부를, 가정 환경을 대리하는 부모 학력(대졸여부)과 부모 맞벌이 여부를 선정하였다. 또한, 학생의 경제적 안정성을 대리하는 용돈의 정기적 수령 및 주관적 경제적 여유, 그리고 금융행동 특성(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에 저축, 정기 적금/예금에 저축,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자)을 통제하였다.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는 높은 기대수익과 위험성을 가지므로 위험감수(risk-taking) 또는 위험선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Dohmen et al., 2011; Hayashi and Routh, 2025). 반면 예·적금 및 자유입출금 통장 이용은 금융거래 경험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 및 금융지식에 대한 관심을 대리하는 스스로 금융·경제뉴스를 찾아보는지 여부를 통제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용돈 외의 수입원 여부와 학교 유형(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변수 생성에 활용한 설문 문항 및 처리 방법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변수의 정의와 설명

변수		정의
종속 변수	피해 경험	하위 네 유형 중 한 유형 이상의 금융피해를 경험한 적 있음=1, 없음=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결제된 금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받은 경험 있음=1, 없음=0
	개인신용정보 매매	대출을 받으려고 가족이나 아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대리입금 모집자에게 보낸 경험 있음=1, 없음=0
	휴대폰 대리개통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 기기를 업체에 주고, 업체로부터 휴대폰 금액의 일부를 받은 경험 있음=1, 없음=0
	대리입금	SNS등 온라인에서 대출한 경험 있음=1, 없음=0

변수		정의
통제 변수	성별	남자=1, 여자=0
	학년	해당하는 학년=1, 해당없음=0
	최근 성적수준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1, 해당없음=0) 가장 최근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학업성적이 반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 및 ‘잘하는 수준’ = 상, ‘중간’ = 중, ‘매우 못하는 수준’ 및 ‘못하는 수준’ = 하
	학교 내 금융교육 경험 여부	이제까지 학교에서 금융교육 받은 적 있음=1, 없음=0
	학교 밖 금융교육 경험 여부	이제까지 가정이나 학교 이외의 곳에서 금융교육 받은 적 있음=1, 없음=0
	아버지 대졸 여부	아버지 최종 학력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1, 그 이하=0
	어머니 대졸 여부	어머니 최종 학력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1, 그 이하=0
	부모 맞벌이 여부	부모 모두 직업을 갖고 일함=1, 그 외=0
	정기적 용돈 수령 여부	용돈을 매주 또는 매월 등 정기적으로 받음=1, 그 외=0
	경제적 여유 부족 여부	평소 경제적 여유가 없고 생활이 빠듯하다고 생각함=1, 그 외=0
	저축·투자 경험	다음 항목의 방법으로 돈을 모은 적이 있는지 여부(있음=1, 없음=0) ‘언제든지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계좌(보통예금)에 저축’, ‘정해진 날짜에만 돈을 찾을 수 있는 예금 및 적금계좌에 저축’, ‘주식에 투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
	경제·금융 뉴스 공부 여부	금융교육과 상관없이 스스로 경제뉴스나 금융정보를 찾아 보는 활동을 한 적 있음=1, 없음=0
	지역 규모	(해당하는 지역=1, 해당없음=0)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도서지역
	용돈 외 수입 여부	용돈 이외 수입이 생기는 일 또는 활동한 적 있음=1, 없음=0
	학교 유형	(해당하는 유형=1, 해당없음=0)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주: ‘용돈 외 수입 여부’ 및 ‘학교 유형’은 고등학생 표본에서만 통제하였음.

본 연구는 상술한 금융사기 피해경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어떠한 특성이 금융사기 피해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상술한 종속변수들이 이진 변수이므로 로짓(logistic)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과 같다.

<표 3>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중학생(N=2,853)	고등학생(N=3,000)
성별(남성=1)	51.58	51.82
학년		
1학년	31.85	33.86
2학년	33.27	32.00
3학년	34.87	34.14
최근 성적수준(자기 보고)		
상	23.30	30.18
중	39.80	43.81
하	36.90	26.01
학교 내 금융교육 경험 여부	33.14	38.43
학교 밖 금융교육 경험 여부	5.35	5.92
아버지 대출 여부	65.19	62.93
어머니 대출 여부	64.68	63.11
부모 맞벌이 여부	67.58	68.83
정기적 용돈 수령 여부	57.37	61.76
경제적 여유 부족 여부	10.73	12.05
저축투자경험		
입출금통장 저축	67.51	81.89
정기적금·예금 저축	17.07	26.33
주식투자	12.78	15.16
가상화폐 투자	2.31	3.98
경제·금융 뉴스 공부 여부	24.56	37.01

변수	중학생(N=2,853)	고등학생(N=3,000)
지역 규모		
특별/광역시	39.51	39.75
중소도시	49.69	47.23
읍/면/도서지역	10.80	13.02
용돈 외 수입 여부	-	47.32
학교 유형		
일반고	-	74.44
자율고	-	4.35
특성화고	-	19.18
특수목적고	-	2.03

주: 모든 통제변수가 이진변수이므로 평균값을 퍼센티지로 제시하였음.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값임.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 비율이 51.6%이며, 최근 성적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위권인 학생이 23.3%, 중위권인 학생이 39.8%로 나타났다. 학교 안에서 금융교육을 경험(경제금융 교과목 이수, 사회 등 관련 교과목, 외부강사 강의, 동영상 강의 시청 등)한 학생들이 33.1%, 학교 밖에서 금융 교육을 경험(금융회사, 경제신문사, 지역 센터 주최 등)한 학생들이 5.4%로 나타나 학교 안팎에서 금융교육 경험 기회가 부족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가 65% 내외였고, 맞벌이 부모의 경우도 67.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도 57.4%로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평소에 경제적 여유가 없고 생활이 빠듯하다”)는 학생들의 비율은 10.7%로 나타났다. 저축 및 투자 경험의 경우, 자유로운 입출금통장에 저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67.5%, 정기 적금 및 예금에 저축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1%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12.8%로, 부모 동의 하에 개설할 수 있는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경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의 경우, 2.3%의 학생들이 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직접 개설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투자 경험이 있다는 것은 부모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거나 대리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비율이 51.8%이며, 최근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이 30.2%, 중위권인 학생이 43.8%로 나타나 중학생보다 높은 중상위권 성적 비율을 보였다. 학교 안에서 금융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38.4%, 학교 밖에서 금융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5.9%로 나타나 중학생보다 소폭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고등학교 안팎으로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고 금융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경우가 63% 내외이며, 맞벌이 부모의 경우도 68.8%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은 61.8%로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도 중학생보다 소폭 높은 12.1%로 나타났다. 저축 및 투자 경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자유로운 입출금통장에 저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81.9%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금융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금 및 예금에 저축한 경험은 26.3%, 주식투자의 경험은 15.2%, 가상화폐 투자 경험은 4.0%로 나타나 모든 수단에서 고등학생의 금융경험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이 되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수령하고, 용돈으로 저축 및 투자 경험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용돈 외의 수입을 벌 수 있는 활동(아르바이트, 부모 일 도움, 중고거래, 투자수익 등)을 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표본의 47.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의 고등학생들이 용돈 외 수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회귀분석 결과

금융피해 경험 여부의 결정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³⁾ <표 4>는 중학생의, <표 5>는 고등학생의 금융피해 경험 여부 결정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3) 추정된 로짓 계수값을 오즈비(odds ratio)로 환산하였고, 95% 신뢰구간을 보고하였다. 추정된 오즈비의 신뢰구간에 1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결과값은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표 4> 중학생의 금융피해 경험 여부 결정요인

	(1) 피해 경험	(2) 소액결제	(3) 신용정보 매매	(4) 휴대폰 개통	(5) 대리입금
남성	1.199 (0.936 - 1.535)	2.392*** (1.630 - 3.509)	1.692 (0.703 - 4.070)	0.994 (0.680 - 1.453)	0.876 (0.583 - 1.314)
(준거집단: 1학년)					
2학년	1.131 (0.830 - 1.539)	1.054 (0.689 - 1.612)	1.795 (0.695 - 4.638)	1.361 (0.825 - 2.246)	1.296 (0.787 - 2.133)
3학년	1.485** (1.099 - 2.006)	1.091 (0.702 - 1.697)	1.917 (0.684 - 5.376)	2.109*** (1.324 - 3.359)	1.291 (0.771 - 2.162)
(준거집단: 최근 성적(상))					
성적(중)	1.077 (0.785 - 1.477)	1.308 (0.839 - 2.040)	0.619 (0.249 - 1.535)	1.192 (0.728 - 1.949)	0.899 (0.524 - 1.543)
성적(하)	0.804 (0.569 - 1.136)	0.743 (0.451 - 1.226)	0.287*** (0.111 - 0.741)	0.933 (0.553 - 1.575)	0.894 (0.511 - 1.563)
아버지 대출	0.925 (0.666 - 1.285)	1.211 (0.794 - 1.847)	0.707 (0.338 - 1.477)	0.928 (0.562 - 1.530)	0.664 (0.371 - 1.187)
어머니 대출	1.168 (0.834 - 1.635)	0.865 (0.564 - 1.327)	1.335 (0.591 - 3.012)	1.280 (0.761 - 2.154)	1.648 (0.890 - 3.051)
부모 맞벌이	1.136 (0.869 - 1.484)	0.975 (0.673 - 1.413)	0.973 (0.421 - 2.247)	1.068 (0.718 - 1.589)	0.892 (0.579 - 1.376)
경제적 여유 부족	1.501** (1.063 - 2.119)	1.593** (1.013 - 2.506)	1.409 (0.552 - 3.593)	1.300 (0.735 - 2.300)	1.490 (0.861 - 2.577)
정기적 용돈	0.997 (0.776 - 1.281)	0.982 (0.694 - 1.390)	0.395** (0.185 - 0.844)	0.862 (0.583 - 1.275)	0.749 (0.501 - 1.121)

	(1) 피해 경험	(2) 소액결제	(3) 신용정보 매매	(4) 휴대폰 개통	(5) 대리입금
자유로운입출금 저축	1.015 (0.773 - 1.333)	0.796 (0.544 - 1.163)	0.671 (0.304 - 1.478)	1.273 (0.828 - 1.955)	0.908 (0.576 - 1.430)
정기적금 저축	1.469** (1.092 - 1.976)	1.785*** (1.204 - 2.647)	2.972*** (1.310 - 6.743)	2.085*** (1.370 - 3.171)	1.412 (0.893 - 2.231)
주식 투자	1.423** (1.011 - 2.002)	1.537* (0.945 - 2.501)	4.199*** (1.713 - 10.294)	1.389 (0.823 - 2.343)	1.309 (0.739 - 2.319)
가상화폐 투자	2.304*** (1.254 - 4.232)	3.444*** (1.713 - 6.927)	6.512*** (2.224 - 19.073)	2.887*** (1.325 - 6.288)	4.924*** (2.274 - 10.666)
학교 금융교육	0.850 (0.653 - 1.106)	0.783 (0.542 - 1.133)	0.523 (0.233 - 1.174)	1.055 (0.716 - 1.555)	0.846 (0.538 - 1.331)
학교 밖 금융교육	2.413*** (1.604 - 3.630)	1.851** (1.013 - 3.385)	5.785*** (2.426 - 13.794)	2.734*** (1.578 - 4.735)	3.608*** (2.022 - 6.439)
경제·금융뉴스 공부	1.114 (0.833 - 1.489)	1.105 (0.729 - 1.675)	1.430 (0.567 - 3.611)	1.194 (0.773 - 1.844)	0.882 (0.529 - 1.472)
(준거집단: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1.220 (0.940 - 1.585)	1.472** (1.011 - 2.144)	3.026** (1.172 - 7.811)	1.200 (0.802 - 1.793)	1.364 (0.875 - 2.127)
읍·면·도서지역	1.007 (0.640 - 1.586)	1.382 (0.751 - 2.541)	5.127** (1.358 - 19.353)	0.641 (0.282 - 1.458)	1.713 (0.850 - 3.451)
관측치 수	2,853	2,853	2,853	2,853	2,853
Pseudo-R ²	0.0348	0.0715	0.248	0.0608	0.0556

주: 계수 값은 오즈비, 괄호 안 숫자는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값임. Pseudo-R²는 맥패든 결정계수(McFadden's R²)임. *** p<0.01, ** p<0.05, * p<0.1.

중학생의 금융피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 경험 여부 자체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1)열), 성별, 성적, 가정환경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중학교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금융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금융거래나 디지털 금융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요인은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 금융상품 투자 경험, 그리고 학교 밖 금융교육 경험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스스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대출이나 고수익 투자 등 위험한 금융활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기 적금이나 예금 상품에 저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저축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금융피해를 경험했을 오즈가 약 1.5배 높았다. 이는 저축을 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금융거래를 보다 빈번하게 수행하는 학생일수록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금융피해를 접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과 심리적 불안정이 금융사기 피해 경험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한진수(2024)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했을 오즈가 약 2.3배 높았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험은 위험선호 성향이나 적극적인 금융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금융사기 노출 가능성을 높였을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미성년자 거래에 제약이 있는 만큼, 비공식적인 거래 경로나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있었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학교 내 금융교육의 경우, 금융피해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현재의 학교 금융교육으로 금융사기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교육의 효과 부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교육의 내용과 방식, 시기 및 시간 등을 반영하지 못한 변수의 한계 때문일 수 있다. 한편, 학교 밖 금융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했을 오즈가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학교 밖 금융교육이 금융회사 중심으로 금융상품 소개 및 투자 방법 안내에 치우쳐 이루어졌다면, 위험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사기 노출 위험 역시 증가시켰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한 이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거나 금융지식 습득을 위해 학교 밖 금융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세부 피해 유형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2)열)는 (1)열의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저축 및 투자 등 금융경험이 있을수록, 학교 밖 금융교육을 경험했을수록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경험을 겪을 오즈가 높았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3)열)에는 다른 종속변수에 비해 추정된 계수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신용정보 매매를 경험한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데서 비롯된 통계적 현상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분석 결과,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에 비해 하위권인 학생이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할 오즈가 낮았으며, 정기적으로 용돈을 수령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해당 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대리개통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4)열), 대체로 (1)열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대리개통 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높았다. 이는 휴대폰 개통 가능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리입금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5)열), 뚜렷한 결정요인은 가상화폐 투자 경험 및 학교 밖 금융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학생의 금융사기 피해 경험 여부의 주요 결정요인은 위험상품 투자 경험, 특히 가상화폐 투자 경험과 학교 밖 금융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 밖 금융교육의 경우, 금융회사 교육으로 인한 위험한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을 가능성과 피해 경험 이후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교육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5> 고등학생의 금융피해 경험 여부 결정요인

	(1) 피해 경험	(2) 소액결제	(3) 신용정보 매매	(4) 휴대폰 개통	(5) 대리입금
남성	1.140 (0.876 - 1.483)	2.155*** (1.429 - 3.247)	1.558 (0.636 - 3.816)	0.872 (0.619 - 1.228)	1.004 (0.619 - 1.628)
(준거집단: 1학년)					
2학년	1.192 (0.885 - 1.607)	0.907 (0.576 - 1.429)	0.751 (0.288 - 1.954)	1.414* (0.960 - 2.082)	1.014 (0.593 - 1.732)
3학년	1.036 (0.751 - 1.428)	1.232 (0.774 - 1.961)	1.232 (0.526 - 2.888)	0.961 (0.636 - 1.452)	1.102 (0.633 - 1.918)
(준거집단: 최근 성적(상))					
성적(중)	0.927 (0.683 - 1.257)	0.939 (0.601 - 1.468)	0.927 (0.406 - 2.116)	1.069 (0.719 - 1.589)	0.892 (0.504 - 1.580)
성적(하)	0.759 (0.525 - 1.097)	0.692 (0.397 - 1.207)	0.383* (0.132 - 1.113)	0.793 (0.497 - 1.266)	0.994 (0.523 - 1.892)
아버지 대출	0.772 (0.542 - 1.099)	0.610* (0.341 - 1.091)	2.080 (0.398 - 10.857)	0.752 (0.474 - 1.193)	1.071 (0.503 - 2.282)
어머니 대출	1.007 (0.703 - 1.444)	1.420 (0.772 - 2.612)	1.079 (0.204 - 5.723)	0.831 (0.515 - 1.338)	0.827 (0.394 - 1.734)
부모 맞벌이	0.958 (0.722 - 1.270)	0.856 (0.571 - 1.284)	0.496* (0.219 - 1.121)	0.980 (0.693 - 1.387)	0.828 (0.514 - 1.334)
경제적 여유 부족	1.509** (1.073 - 2.123)	2.154*** (1.339 - 3.464)	1.042 (0.409 - 2.658)	0.980 (0.619 - 1.550)	1.224 (0.673 - 2.225)
정기적 용돈	0.799 (0.611 - 1.046)	0.784 (0.522 - 1.176)	0.600 (0.244 - 1.474)	0.834 (0.591 - 1.177)	0.620* (0.384 - 1.002)

	(1) 피해 경험	(2) 소액결제	(3) 신용정보 매매	(4) 휴대폰 개통	(5) 대리입금
자유로운입출금 저축	1.685*** (1.191 - 2.385)	1.678* (0.972 - 2.899)	0.347** (0.134 - 0.899)	2.003*** (1.239 - 3.237)	0.590** (0.353 - 0.987)
정기적금·예금 저축	1.130 (0.836 - 1.526)	1.320 (0.835 - 2.089)	2.330** (1.029 - 5.278)	1.209 (0.850 - 1.719)	1.038 (0.637 - 1.691)
주식 투자	1.587** (1.080 - 2.332)	1.446 (0.802 - 2.606)	5.957*** (1.916 - 18.521)	1.366 (0.845 - 2.210)	3.438*** (1.850 - 6.388)
가상화폐 투자	2.485*** (1.435 - 4.302)	3.134*** (1.559 - 6.300)	14.929*** (6.037 - 36.922)	2.774*** (1.485 - 5.180)	5.659*** (2.900 - 11.042)
학교 금융교육	1.141 (0.864 - 1.507)	1.001 (0.630 - 1.589)	1.632 (0.780 - 3.415)	1.226 (0.873 - 1.719)	1.387 (0.886 - 2.171)
학교 밖 금융교육	1.671* (0.932 - 2.997)	2.193** (1.063 - 4.526)	2.281 (0.754 - 6.901)	1.311 (0.750 - 2.292)	1.854 (0.864 - 3.979)
경제·금융뉴스 공부	0.970 (0.716 - 1.315)	1.053 (0.642 - 1.728)	0.241** (0.065 - 0.898)	1.135 (0.776 - 1.661)	0.397*** (0.219 - 0.721)
(준거집단: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0.738** (0.566 - 0.963)	0.695* (0.472 - 1.022)	0.606 (0.244 - 1.504)	0.918 (0.652 - 1.294)	0.852 (0.522 - 1.388)
읍·면·도서지역	0.739 (0.469 - 1.166)	0.630 (0.298 - 1.330)	1.189 (0.351 - 4.031)	0.866 (0.474 - 1.582)	0.576 (0.202 - 1.644)
용돈 외 수입	1.231 (0.936 - 1.619)	1.229 (0.804 - 1.878)	4.362** (1.386 - 13.727)	1.261 (0.907 - 1.752)	1.253 (0.775 - 2.025)

	(1) 피해 경험	(2) 소액결제	(3) 신용정보 매매	(4) 휴대폰 개통	(5) 대리입금
(준거집단: 일반고)					
자율고	0.771 (0.513 - 1.159)	0.771 (0.430 - 1.382)	1.276 (0.386 - 4.222)	0.827 (0.495 - 1.383)	1.249 (0.613 - 2.546)
특성화고	1.149 (0.803 - 1.644)	1.543 (0.900 - 2.643)	6.929*** (2.839 - 16.915)	1.088 (0.725 - 1.633)	2.255*** (1.344 - 3.785)
특수목적고	1.326 (0.766 - 2.295)	1.924* (0.935 - 3.961)	3.113 (0.693 - 13.975)	0.795 (0.346 - 1.826)	2.317 (0.847 - 6.342)
관측치 수	3,000	3,000	3,000	3,000	3,000
Pseudo-R ²	0.0481	0.107	0.406	0.0431	0.152

주: 계수 값은 오즈비, 괄호 안 숫자는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값임. Pseudo-R²는 맥패든 결정계수(McFadden's R²)임. *** p<0.01, ** p<0.05, * p<0.1.

고등학생의 금융사기 경험을 분석한 결과,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경험 여부 자체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경우((1)열), 성별, 학년 성적, 부모 특성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 및 투자 경험의 경우,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에 저축 경험이 있거나,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 금융사기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학생 집단의 분석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학교 밖 금융교육을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광역시 거주 학생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 학생이 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낮았다. 반면, 용돈 외 수입원의 존재 여부와 학교 유형은 피해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 피해 유형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2.2배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 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열).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0% 유의수준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낮았다. 한편 특수목적고 재학생은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 재학생보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경험할 오즈가 약 1.9배 높았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경험의 경우((3)열), 다른 피해 유형과 다소 상이한 결정요인이 발견되었다. 다만 이 유형은 관측치 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해 경험 오즈가 약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 저축 경험을 제외한 다른 금융상품 투자 경험 변수들의 계수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 및 금융 뉴스를 능동적으로 찾아보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피해를 경험할 오즈가 약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용돈 외 수입이 있거나 특성화고 재학 중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거래할 오즈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휴대폰 대리개통 피해의 경우((4)열), 다른 피해 유형에 비해 뚜렷한 결정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입금 피해의 경우((5)열), 정기적인 용돈 수입,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 저축 경험, 그리고 경제 및 금융뉴스 학습이 피해 경험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고등학생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위험상품 투자 경험, 특히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금융사기 피해 경험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투자는 미성년자에게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 가능성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행동 자체가 금융사기에 대한 노출을 높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의 금융피해 경험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금융피해 경험은 학교 및 부모 특성이나 단순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는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 위험상품 투자 경험, 학교 밖 금융교육 경험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가상화폐를 비롯한 위험상품 투자 경험이 금융사기 피해와 일관되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은, 청소년의 금융피해가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동적이고 위험한 금융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금융피해를 단순한 정보 부족이나 일회성 실수의 결과로 여기기보다, 청소년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금융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큰 시기이므로, 도박, 비공식 투자, 개인정보 거래와 같은 위험행동 역시 친구의 권유나 압박, 모방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피해 또한 이러한 동료효과(peer effect) 속에서 위험한 활동에 가담한 학생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활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또래집단의 특성이나 동료효과를 직접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며,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이 누락되는 모형의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므로 인과적 방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환경이나 종단자료를 활용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 금융교육이 중·고등학생의 금융사기 피해경험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자료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으나 현재 금융교육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Burke et al.(2022)의 연구가 보여주듯, 사기의 작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반복적 상기가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정규 교과목 외에도 금융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를 주기적으로 다루는 간단한 특강 형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Blackwell et al.(2024)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제나 금융지식만 갖추는 것보다 사기 신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의심하는 태도가 함께 수반될 때 경제 및 금융지식의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단순히 금융지식을 축적하는 금융교육 방식보다 사기 신호를 식별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역량을 함께 길러주는 방향으로 금융교육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은 금융시장 참여 경험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저축, 투자, 경제개념 등의 일반적이고 이론적 내용보다 가상화폐 투자 권유, 불법대출, SNS 기반 금융사기, 도박 연계형 사기 등 청소년이 실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금융사기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 나아가 친구의 권유나 또래집단의 유행으로 포장된 위험행동이 어떻게 금융사기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고, 그러한 상황에서 거절하고 이탈할 수 있는 의사결정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상담도 병행되어 경제적 필요가 불법적·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이어지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청소년 금융교육은 금융지식 교육, 비판적 의식의 함양, 그리고 환경·또래 압력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훈련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지경 · 서정아 · 송현주(2023),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연구보고 23-기본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매일경제(2024), "중학생 우리 아들이 자꾸 돈 얘기해요"...이 방에 들어갔나 의심을, 신문 기사(10. 27.).
- 연합뉴스(2026), [도박이 삼킨 교실] ① 사채업자가 된 동급생이 엄마를 협박했다, 신문 기사(6. 29.).
- 정운영 · 조성목 · 장동성 · 안준석(2023), 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실태 및 현황분석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발생 여부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30(1), 77-106.
- 한진수(2024), 왜 어떤 사람은 금융사기에 더 취약한가? - 금융사기 취약성과 개인 특성, 시민교육연구, 56(1), 109-128.
- Andreou, P. C. and D. Philip (2018), Financial Knowledg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Implications for Personal Debt and Fraudulent Investments, *Cyprus Economic Policy Review*, 12(2), 3-23.
- Bai, Z. and P. Wang (2025), From medium to risk factor: How crypto investment elevates fraud victimization, *Finance Research Letters*, 108592.
- Blackwell, C., D. Burns, M. Kapounek, and J. F. McDonald (2024), Who Gets Duped? The Impact of Education on Fraud Detection in an Investment Task,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48(3), 501-522.
- Burke, J., C. Kieffer, G. Mottola, and F. Perez-Arce (2022), Can Educational Interventions Reduce Susceptibility to Financial Fraud?,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98, 250-266.
- DeLiema, M., S. Gao, D. Brannock, and L. Langton (2025), The Effects of Risky Behaviors and Social Factors on the Frequency of Fraud Victimization among Known Victims, *Innovation in Aging*, 9(2), igae111.
- Dohmen, T., A. Falk, D. Huffman, U. Sunde, J. Schupp, and G. G. Wagner (2011), Individual risk attitudes: Measurement, determinants, and behavioral consequence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9(3), 522-550.

- Gamble, K. J., P. A. Boyle, L. Yu, and D. A. Bennett (2014),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Financial Fraud among Older American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Working Paper, No. 2014-13.
- Han, S. D., P. A. Boyle, B. D. James, L. Yu, and D. A. Bennett (2015),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Susceptibility to Scams in Old Age,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49(3), 845-851.
- Hayashi, F., and A. Routh (2025), Financial literacy, risk tolerance, and cryptocurrency 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Finance*, 46, 101060.
- Kerstens, J. and J. Jansen (2016), The Victim-Perpetrator Overlap in Financial Cybercrime: Evidence and Reflections on Youth's Online Offending,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39(4), 533-548.
- Kubilay, E., E. Raiber, L. Spantig, J. Cahliková, and L. Kaaria (2023), Can You Spot a Scam? Measuring and Improving Scam Identification Abilit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65, 103147.
- Lichtenberg, P. A., L. Stickney, and D. Paulson (2013), Is Psychological Vulnerability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Fraud in Older Adults?, *Clinical Gerontologist*, 36(2), 132-146.
- OECD (2026), *Protecting Consumers from Financial Scams and Frauds*, OECD Publishing, Paris.
- Siu, J. C. L., H. Zhong, and A. Nivette (2024), Exploring the impact of routine activity and financial strain on fraud victimiz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Hong Kong, *Asian Journal of Criminology*, 19(3), 441-458.
- Zhou, Y., R. J. Lee, K. Lin, and M. Tiwari (2026), Examining Cyber Fraud Victimizat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Crime & Delinquency*, online first. <https://doi.org/10.1177/00111287261440144>.

<Abstract>

Determinants of Financial Victimization Experience among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Seong Hee Kim*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victimization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using data from the 2023 Survey on Youth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Behavior. The results indicate that financial victimization is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financial hardship, high-risk financial product investment experience, and financial education outside school, rather than with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cademic performance,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high-risk investment experiences, including cryptocurrency, were consistent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inancial victimization among both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By contrast, experiencing school-based financial education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olescent financial victimization arises not only from insufficient information but also from risk-taking behavior and indiscriminate exposure to digital financial activities. Financial education for adolescents should focus more on fraud prevention, including understanding fraud schemes, identifying warning signs, strengthening critical judgment, and improving decision-making under situational or peer pressure.

Key words: Adolescent financial victimization, Financial education, Economic education, Cryptocurrency investment

원고접수: 2026년 07월 08일 심사일: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8월 24일
게재확정: 2026년 08월 24일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h.kim@jbnu.ac.kr).